

正己篇(下)

夷堅志云、避色 如避讐 避風 如避箭。莫喫空心茶 少食中夜飯。

⇒《이견지》에 이르기를, 여색 피하기를 원수 피하듯이 하고, 풍(風)을 피하기를 화살 피하듯이 하라. 빈속에 차를 마시지 말고, 한밤중에는 밥을 적게 먹어라.

⇒《夷堅志》に伝わるのに女色避けるのは敵を避けるようにして、風を避けるのは矢を避けるようにしなさい。空腹にお茶を飲まないこと。真夜中にはご飯を少なく食べること。

荀子曰、無用之辯 不急之察 棄而勿治。

⇒순자가 말하기를,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은 내버려두고 다스리지 말라.

⇒荀子が言うのに無駄な言葉と急がない事は置いといて治めないこと。

子曰、衆 好之 必察焉 衆 惡之 必察焉。

⇒공자가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해도 반드시 살펴야 하며, 모든 사람들이 싫어해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孔子が言うのにすべての人々が好きでも必ず察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すべての人々が嫌がっても必ず察しなければならない。

酒中不語 眞君子 財上分明 大丈夫。

⇒술이 취했을 때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은 참다운 군자이고, 재물에 대해 분명한 사람은 대장부이다.

⇒お酒に酔った時に言葉数が少ない人は眞の君子で、財物に対して明らかな人は大丈夫だ。

萬事從寬 其福自厚。

⇒모든 일은 너그러움을 쫓으면 그 복이 저절로 두터워진다.

⇒全ての事に寛大さを追えばその福が自然に厚くなる。

太公曰、欲量他人 先須自量。傷人之語 還是自傷 含血噴人 先汚其口。

⇒태공이 말하기를, 남을 알려고 하면 모름지기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남을 해치는 말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이니 피를 머금어 남에게 뱉으면 먼저 자신의 입이 더러워진다.

⇒太公が言うのに他人を知ろうとすると先ず、自分自身を知らなければならない。人を害する言葉はむしろ自分自身を害することだから血を含んで他人にふけば先に自分の口が汚くなる。

凡戲 無益 惟勤 有功。

⇒놀이만을 하는 것은 전혀 이로운 것이 없으며, 오직 부지런함만이 성공을 거두게 된다.

⇒遊びのみをすることは全然よいことがなく、ただ勤勉のみが成功をするようになる。

太公曰、瓜田 不納履 李下 不正冠。

⇒태공이 말하기를, 외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

⇒太公が言うのに瓜畑では靴を直してならないし、スモモ下では冠を直してならない。

景行録曰、心可逸 形不可不勞 道可樂 心不可不憂。形不勞則怠惰易弊 心不憂則荒淫不定。故 逸生於勞而常休 樂生於憂而武厭 逸樂者 憂勞 豈可忘乎。

⇒《경행록》에 말하기를, 비록 마음은 편할 수 있지만 몸은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도는 즐길 수 있지만 마음에 근심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몸은 일을 하지 않으면 게을러서 허물어지기 쉽고, 마음에 근심을 하지 않으면 방탕에 빠져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편안함은 일하는 데서 생겨야 언제나 기쁠 수 있고, 즐거움은 근심하는 데서 생겨야 싫어함이 없으니 편안하고 즐거운 사람이 근심과 수고로움을 잊을 수 있겠는가.

⇒《景行録》に言うのに例え心は樂であっても身は仕事をしなければならず、道は楽しんで心は懸念をしなければならぬ。身は仕事をしなければ怠けで崩れやすく、心は懸念をしなければ遊蕩になって正しい行動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だから樂さは仕事することから生ずるといつも嬉しいことがあって、楽しいことは心配することから生ずると嫌がることのないから樂で楽しい人が懸念と苦勞さを忘れることが出来ない。

耳不聞人之非 目不視人之短 口不言人之過 庶幾君子。

⇒귀로는 남의 그릇됨을 듣지 않고 눈으로는 남의 단점을 보지 않으며 입으로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아야 군자라고 말할 수 있다.

⇒耳では他人の誤ったことを聞かなく、目では他人の短所を見ないし、口では他人の咎を言わないと君子と言える。

蔡伯偕曰、蔡伯階曰、喜怒 在心 言出於口 不可不慎。

⇒채백개가 말하기를,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고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니 신중하지 않으면 안된다.

⇒蔡伯偕が言うのに喜びと怒ることは心の中にあるが、言葉は口から出ることだから慎重ではなければならない。

宰予晝寢 子曰、朽木 不可雕也 糞土之墻 不可巧也。

⇒재여가 낮잠을 자고 있을 때 공자가 말하기를, 썩은 나무는 조각을 할 수 없고 썩은 흙으로 만든 담은 흠손질을 할 수 없다.

⇒宰予が昼寢をしている時に孔子が言うのに腐った木は彫刻することが出来なくて腐った土で作った塀は手入れが出来ない。

古書との出会い 正己篇(下)

紫虚元君誠諭心文曰、福生於清儉 徳生於卑退 道生於安靜 命生於和暢。憂生於多慾 禍生於多貪 過生於輕慢 罪生於不仁。瑚良莫看他非 戒口莫談他短 戒心莫自貪嗔 戒身莫隨惡伴。無益之言 莫妄説 不干己事 莫妄爲。尊君王孝父母 敬尊長奉有徳 別賢愚怨無識。物順來而勿拒 物既去而勿追 身未遇而勿望 事已過而勿思。

聰明 多暗昧 算計 夫便宜。損人終自失 依勢禍相隨。戒之在心 守之在氣。爲不節而亡家 因不廉而失位。勸君自警於平生 可歎可驚而可思。上臨之以天鑑 下察之以地祇。明有三法相繼 暗有鬼神相隨。

惟正可守 心不可欺 戒之戒之。

⇒자허원군 성유심문에 말하기를, 복(福)은 청렴하고 검소한 데서 생기고 덕(德)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데서 생기고 도(道)는 편안하고 고요한 데서 생기며 생명은 온화하고 맑은 데서 생긴다. 근심은 많은 욕심에서 생기고 재앙은 많은 탐욕에서 생기고 실수는 경솔하고 교만한 데서 생기며 죄악은 어질지 못한 데서 생긴다. 눈을 조심하여 남의 그릇됨을 보지 말고 입을 조심하여 남의 결점을 말하지 말고 마음을 조심하여 스스로 탐내거나 화를 내지 말고 몸을 조심하여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라. 이롭지 않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며 나와 관계없는 일을 함부로 하지 말라. 임금님을 높이 받들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웃어른을 존경하고 덕 있는 사람을 우러러 받들며 어진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분별하고 무식한 사람을 꾸짖지 말고 용서하라. 모든 일이 순리대로 찾아오면 물리치지 말고 이미 지나갔거든 쫓지 말고 몸이 불우하게 되었어도 잘되기를 바라지 말며 일이 이미 지나가 버렸으면 생각하지 말라. 총명한 사람도 어둡고 둔하여 어리석을 때가 있고 계획을 빈틈없이 잘 세웠어도 편의(便宜)를 잃는 수가 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마침내 자신도 손해를 입을 것이며 세력을 믿고 그것에 의존하면 재앙이 서로 다투어 따라 일어날 것이다. 경계하는 것은 마음에 있고 지키는 것은 의기(意氣)에 있다. 절약하지 않으면 집안이 망하고 청렴하지 않으면 지위를 잃게 된다.그대에게 평생을 두고 스스로 조심해서 지킬 것을 권하노니, 감탄하고 놀라운 마음으로 잘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위에는 하늘의 거울이 있어 밑을 비추어 살펴보고 밑에는 땅의 신령[地神]이 있어 살피고 있다. 밝은 곳에는 삼법(三法)이 서로 이어져 있고 어두운 곳에는 귀신이 서로 뒤를 따르고 있다. 오직 바른 것을 지키고 마음을 속이지 말도록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紫虚元君誠諭心文に言うのに福は清廉でつましいことから生じて、徳は自分を低めて謙遜なところで生じて、道は楽で静かなところで生じて、生命は穏やかで清いなところで生まれる。懸念は多くの欲で生じて、災いは多くの貪欲で生じて、間違いは軽率で驕慢なところで生じて、罪悪は善良ではないことで生ずる。目に気を付けて他人の過ちを見ず、口に気を付けて他人の欠点を言わず、心に気を付けて自ら貪るとか怒らず、身に気を付けて悪い友達と付き合わないこと。よくない言葉をむやみに言わなく、自身と関係ない事をむやみにするな。王様を高く奉じて親に親孝行して目上の人を尊敬して徳ある人を仰いで奉じて御真人と愚かな人を分別して無知な人を叱らずに許しなさい。すべての事が順理どおり尋ねて来れば退けず、もう過ぎ去ったとなら追わず、身が不遇になってもよくできるように願わなくて、事がもう過ぎ去ってしまったら思わないこと。聡い人も暗くて鈍くて愚かな時があって、計画をすきまもなくよく立てても便宜を失うことがある。他人に損害を与えれば遂に自分も損害を受ける時もあるし、勢力を信じてそれに寄り掛かれば災いがお

古書との出会い 正己篇（下）

互いに争ってよって起きるでしょう。警戒することは心であって守ることは心意気にある。節約しなければ家が亡びて清廉ではなければ地位を失うようになる。君に一生を置いて自ら気を付けて守ることを進めるから、感嘆して驚くべき心でよく考えてくれるように願う。上には空の鏡があって下を照らしてよく見て、下には地の地神があって察している。明るい所には三法がお互いにつながっていて、暗い所には鬼がお互いに後に沿っている。ただ正しいことを守って心を欺かないように警戒してまた警戒しなさい。